전북도민일보

전주시가족센터, 전주교도소와 '가족사랑캠프' 운영 … 수용자 가족 유대 회복·사회 복귀 지원

김미진 기자 | 승인 2026.04.04 15:14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 교수)이 운영하는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3일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희망 愛너지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했다.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 교수)이 운영하는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는 3일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희망 愛너지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수용 생활로 인해 단절되거나 약화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긍정마인드 교육과 팀빌딩 게임 등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시작해,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 푸드테라피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이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되새겼다.

이해경 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수용자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가족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재소 생활 안정과 재범 방지, 사회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진 기자